



임실군은 지난 3일 임실을 두곡리 임실역 앞에 위치한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판매장' 준공식을 개최하고 있다.

'치즈유통' 새 시대 열린다

임실N치즈 유통센터 건립 총 8억8000여만원 투입 출고·판매까지 윈스톱

임실N치즈의 유통시스템과 판매기능을 결합한 윈스톱 기능을 갖춘 '임실N치즈 유통센터'가 건립됐다. 임실군은 지난 3일 임실을 두곡리 임실역 앞에 위치한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판매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은 심민 군수와 문영두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관내 유가공업체 관계자와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임실N치즈 유통센터는 전라북도 동부권특별회계사업인 동부권식품클러스터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임실군은 임실치즈식품클러스터사업

을 추진, 지난 2016년 8월 한국철도공사 부지를 매입해 공사에 착수했으며, 총 사업비로 8억 8000여만원이 투입됐다. 유통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유제품과 피자, 커피 등 판매장과 저온저장고 및 창고 등과 함께 유제품 입고부터 포장, 출고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윈스톱 설비를 갖췄다. 2층에는 사무공간과 회의실이 마련, 관내 유가공업체의 생산 유통 및 홍보마케팅 지원과 커뮤니케이션 활동 공간으로 이용될 전망이다. 특히 이 센터는 치즈 관련 다양한 유제품을 집하부터 저장, 포장, 출하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갖춰 유가공업체는 물론 낙농가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임실역 인근에 건립됨에 따라 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지역민

들의 방문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변 상권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민 군수는 "임실N치즈는 대한민국 치즈산업의 대표 브랜드로서 국내 많은 소비자들에게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 이곳 임실역 앞에 건립된 임실N치즈 유통센터를 기점으로 임실N치즈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임실치즈산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은 (사)임실엔치즈클러스터사업단을 통하여 완주순천 고속도로 오수휴게소 상·하행선 2개소, 경기 광주휴게소 상·하행선 2개소의 임실N치즈 지역 판매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급변 시장확충을 기반으로 전국 곳곳에 지속적으로 매장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통장문화학교 인기 '엄지 척'

순창군 올해 누적 체험객 1100여명 집계

순창 전통장문화학교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전국적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시흥시 급식관리센터 관계자 80여명이 순창 전통장 농촌문화학교 체험에 나서 장담기 체험과 전통식생활체험, 농장 및 농촌문화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객 방문으로 3일 기준 순창 전통장 문화학교 체험객은 1,117명으로 집계되면서 전통식문화

체험코스료 확실히 자리를 굳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통장문화학교는 도시학생들이 순창고추장민속마을을 방문해 기능인들과 함께 전통장을 담는 등 발효문화를 체험하고 담긴 장은 학교 급식으로 연결해 아이들의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 군은 서울시와 운영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성남시와도 시범사업을 통해 전통장 문화학교의 확대에 나섰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농촌관광시스

템 공모에 선정돼 추진한다. 기존 전통장문화학교에 농촌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했다. 군은 내년에 다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확보해 전통장문화학교 사업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김재건 장류사업소장은 "우리 고유의 전통장의 우수성과 그를 바탕으로 한 식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전통장문화학교는 순창만의 독특한 체험프로그램이다"면서 "내년에는 전국적 확대를 통해 순창의 장문화를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통장문화학교 이외에도 11월 3일 현재 산업관광 프로그램으로 순창을 방문한 인원이 2,347명으로 집계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학생 여러분, 아침밥 드세요"

남원지역 청소년 결식을 높여 시보건소, 오늘 캠페인 전개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이 6일 열린다. 지난 3일 남원시보건소에 따르면 6일 남원한울학교에서 장애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아침식사 대용품인 우유·빵과 함께 아침밥 먹기 중요성을 알리는 리플렛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영양 등 건강생활실천 정보가 실

린 가정통신문을 통해 건강생활실천 습관 전파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남원지역 학생들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보면 남원지역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률은 48.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 관계자는 "청소년기 아침식사 결식은 성장저하를 가져오고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가능성이 높아져 만성적 생활습관병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건강한 식생활습관 형성 및 인식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휴농기철 하천정비사업 박차

남원시 1억3000만원 투입 퇴적토·수목제거 실시

남원시가 휴농기를 맞아 대대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12월 20일 전까지 송동면에 위치한 장포천 등 15개 하천에 1억3000만원 사업비를 들여 퇴적토와 자생하고 있는 수목 및 오염물질 제거를 함께 추진한다. 이번 준설작업을 위하여 지난 10월부터 읍면동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 선정하였으며, 그동안 비농사 등으로 농경지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하천에 대해 집중 준설작업을 실시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하천정비를 동절기 전까지 차질없이 완료하여 재해



예방과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매년 홍수기에 하천 재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 관내 소하천은 347개에 389.6km가 있다. 남원시는 농경지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사업비 77억원을 들여 수지면 고평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청소년문화축제 '끼 발산' 성공

비보이·저글링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 500여명 들썩

임실군은 지난 4일 군민체육회관에서 청소년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임실군 청소년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나누는 화합과 축제의 장인 이번 문화축제는 지역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재능대회와 비보이 및 저글링 공연과 창작체험활동 등으로 이루어졌다. 창작체험활동은 관내 중·고생들이 주관하여 예코가방만들기, 종이공예 등 참신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인무에 참여한 '청소년이 다함께 행복하자'의 주제로 펼쳐진 플래시몹은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청소년문화축제에는 댄스와 가

요대회, 글쓰기, 그리기대회로 청소년의 끼를 발굴하고, 저글링, 댄스, 비보이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축제장에서는 즉석으로 각종 기네스에 도전하는 기네스대회도 마련, 청소년들의 도전정신과 동반한 친구들이 우승하는 기쁨과 축하를 나누는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였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문화축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함양과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꿈과 끼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 유등면 신소득작물 발굴 나주 국제농업박람회 등 방문

순창 유등면 농업인 40여명이 지난 1일 나주시 국제농업박람회장과 정읍 체리농장을 방문해 선진농업의 트렌드를 배우고 신소득 작물로 체리 육성 가능성을 살펴봤다. 특히 정읍시의 굿모닝 체리 영농조합을 방문해 실제 체리재배 상황을 배우고 앞으로 시장 성장 가능성을 점검해 보는 등 주의를 기울였다고 3일 밝혔다. 유등면은 새로운 키넛은 체리 재배로 신소득 작목 발굴과 농가 소득 다변화를 추진 할 계획으로 지역에 적합한 품종선택과 비가림시설을 이용한 고품질 체리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배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봤다. 최종국 유등면장은 "농업환경이 급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소득 작물과 6차산업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일이 중요해 졌다"면서 "체리 등 신소득 작물을 발굴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청운면행복보장협의체 홀몸 어르신 50여명 문화 향유

영화관람 행사·점식식사 제공

임실군 청운면행복보장협의체(위원장 김중찬)는 지난 3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어르신과 함께 영화관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할배·할배집 가는 날'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홀몸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심은경, 나문희 주연의 코미디 영화 '수상한 그녀'를 관람했다. 평소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어르신에게 문화향유의 시간을 열어드린 이번 행사에는 행복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점식식사도 제공했다. 김중찬 위원장은 "평소 어르신이 문화 활동에 소외되고 있어 마음이 안타까웠다"며 "최신 시설의 영화관은 아니지만 즐겨워하는 어르신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향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관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과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